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24호 현대불교
2007년 4월 18일(음력 3월 2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본래 살아있기 때문에 본래 죽어갈 것이 없다!

여러분과 더불어 또 이렇게 한자릴 하게 됐습니다. 법당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하고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과 더불어 같이 한자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체가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하고 있는 공생(共生이며, 공체(共體)며, 공생(共生)이며, 공용(公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독불장군은 없죠. 종교라는 자체가 바로 생활인 것입니다. 종교가 생활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라는 이름도 없을 것이고, 부처라는 이름이 없으면 부처라는 그 길을 따라서 인간의 도리를 배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마 헤아릴 수 없이 참자기를 만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죽은 영령(英靈)들이나 산 사람들, 유체, 무체가 모두가 차원이 높고 낮은 이런 문제들에 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그냥 묵묵히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고(苦)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분한테, 보지도 못하고 또는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이렇게 고통이 왔는지도 모르는 여러분한테 길을 인도하는 나 자신도 어떤 뎨 참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걸 답답하게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되겠죠. 왜냐하면 물랐을 때의 내 모습을 아니까요. 내가 언제부터 알았겠습니까만 지금에 당해서는 여러분이 모르니까 답답하겠죠. 죽은 사람 산 사람들이 그렇게 결부돼 있고, 태로 낳는 거나 알로 낳는 거나 또는 화(化)해서 낳는 거나 습한 데서 낳는 거나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항상 돌아가니까 여러분은 그 고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항상 되풀이하는 말 같지만 열 마디 백 마디를 되풀이 하더라도 여러분이 침착하게 잘 들으셔서 그것을 응용하실 수 있다면 처음에는 그 고통이 삼분의 일로 줄어들고 나중에 그 삼분의 일마저도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온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이 자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되풀이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苦)덩어리,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난번에 금왕지원에서 얘기했습니까만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살고 뼈를 빌려서 집을 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자기가 했던 것만 기록된 문서를

읽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부모에게서 몸만, 집만 받아가지고 나온 셈이니 그 의식 자체의 덩어리, 고명어리는 자기가 한 것대로 고스란히 짊어지고 나온 것입니다. 짊어지고 나온 것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또 별 문제인데, 자기가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짊어지고 온 문서를 태워 버리지 못하니 독 안에 들어도 못 뚫는다 이겁니다. 예전에 종 문서가 있다면 그 집의 하인 노릇을 자식 대대로 내려가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다 폐지되고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차원 그대로 종 문서를 면치 못한 채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 문서를 짊어지고 나온 데서 움푹을 못하니 거기는 종 문서와 한가지라 이 소립니다. 스스로 그 고통어리 속에서 의식 자체가, 즉 말하자면 수십억 개의 차례차례로 들락거리면서 나고 들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데 그 고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리 만큼 괴롭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이 자체가 수 없이 보이지 않는 데와 보이는 데가 연결이 돼서 돌아가니 너무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 뼈를 빌리고 살을 빌려서 집을 짓고 나왔으나 그 집 속에는 자기가 나오기 이전의 업식을 받아가지고, 종 문서 즉, 기록 문서를 받아 짊어지고 나왔으니 움푹달착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들락날락하면서 들이고 내면서 바깥에서는 악의 세균을 끌어들이고 안에서는 안에 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바깥에나 안에나 그러한 파위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병고를 일으키고, 가난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키고, 외로움을 일으키고, 허무감을 일으키면서 수없는 그 나날을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이 즐거움 거는 잠시 잠깐이고 그저 걱정, 근심 이런 것만이 주어져 합니다. 젊었으면 젊은 대로 늙었으면 늙은 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애는 애대로 말

입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일러드리는 것은 생활에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복을 했지만 여러분은 열 마디를 들어도 그것이 가슴에 와서 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믿는데도 그것이 안됩니다.' 그러합니다. 전전에 역대 조사들이나 부처님...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고 그렇게 됐던 것은 부처님께서 몸을 갈아서 재료 만들어서 뿌렸어도 그 재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살아계십니다. 또, 내가 여러분한테 길잡이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무조건 믿

효과도 할 수 있으며, 충성하고도 우리 부처님 법도 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착한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항상 결부되고 있는 시급한 문제는 자식은 부모가 빨리 죽으면 안 된다, 또 부모는 자식이 나를 두고 빨리 죽으면 안 된다, 죽는다면 또 얼른 죽었으면 좋겠는데 집질집질 끌고, 그냥 재산을 다 없애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중박산을 만드는 이런 병고에 휘말리고 가난에 휘달리고 이래서 식구가 다 병이 들듯이 '이렇게 된다면 아니 된다'는 철저한 그런 생각에서 고통을 받죠.

언젠가 한번은 어느 분이 내게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있죠. '스님, 병명이 영 나오질 않고 모른다'고 그러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그 아들을 살릴 도리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그분네들이 열 분이라 할지라도, 백 분이라 할지라도, 한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항상 가르치죠. 주인공에 모든 것을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맡겨라. 이렇게 되면 이 몸그릇에다가 물 열 방울을 갖다가 넣으니까 이게 (법상 위의) 물결을 들어 보이시면서 두드러지니까? 그냥 한 컵의 물입니다. 이걸 대담해 보십시오. 한 컵의 물이죠. 그래서 방 안에 있던 그 조상님들을 내 물 한 컵에다가 넣으니까 한 컵의 물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한 컵의 물이 되니까 그 방 안은 깨끗해지고 그 불쌍한 그분은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강원도 어디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사람이 살고 죽고 그걸 떠나서 인간으로서 은혜를 알고 진정한 사랑을 안다면, 조상과 부처와 돌이 아니라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부처도 조상이요, 조상도 부처다 이런 소리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부처님의 뜻은 모두가 자식이요, 모두가 자기요, 모두가 자기 부모니까 자기 물 한 컵에다가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이 물을 다 준다 하더라도 줄지 않는 그러한 묘법의 법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속을 풀리지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알 수 있어야지, 자기가 체험을 안 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승화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나투지 못하고 돌이 남을 모르고 이러한 문제를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이러한 이치는 깨닫게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불행해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런 사람

들이 전부 뒤편에서 6·25 때 방 안에다 잔뜩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전부 태워버린 거야. 응? 그런데 그 영령들은 비슬비슬하면서 그 의식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버리는 흉내를 내면서 그 집의 방에 잔뜩 가둬놓았더라 이거야. 이런 건 끔찍한 일이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물론 선조 대로 그것을 잘 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들을 죽였으면 그 집의 방에 죽들 와서 앉았겠습니까? '날 좀 아픈 것 좀 낫게 해줄 수 없느냐?' 해서 어디로 갈 데는 없고 인연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식이라는, 손자라는 인연이 의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려고 그래도 아버지가 해놓는 게 없고, 아버지가 지금 시체만도 하면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그 아들을 살릴 도리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그분네들이 열 분이라 할지라도, 백 분이라 할지라도, 한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항상 가르치죠. 주인공에 모든 것을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맡겨라. 이렇게 되면 이 몸그릇에다가 물 열 방울을 갖다가 넣으니까 이게 (법상 위의) 물결을 들어 보이시면서 두드러지니까? 그냥 한 컵의 물입니다. 이걸 대담해 보십시오. 한 컵의 물이죠. 그래서 방 안에 있던 그 조상님들을 내 물 한 컵에다가 넣으니까 한 컵의 물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한 컵의 물이 되니까 그 방 안은 깨끗해지고 그 불쌍한 그분은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강원도 어디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사람이 살고 죽고 그걸 떠나서 인간으로서 은혜를 알고 진정한 사랑을 안다면, 조상과 부처와 돌이 아니라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부처도 조상이요, 조상도 부처다 이런 소리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부처님의 뜻은 모두가 자식이요, 모두가 자기요, 모두가 자기 부모니까 자기 물 한 컵에다가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이 물을 다 준다 하더라도 줄지 않는 그러한 묘법의 법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속을 풀리지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알 수 있어야지, 자기가 체험을 안 하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승화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나투지 못하고 돌이 남을 모르고 이러한 문제를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이러한 이치는 깨닫게 모릅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불행해서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런 사람

“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다
우주의 어떠한 것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주 조그맣고 하치못한 여러분 마음의 근본이
제일 높고 귀중하고 보배인 것입니다! ”

아주셔야 한다 하는 것은 뭐냐? 현실의 생활에 직결돼 있고 생활에서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면 죽고 죽으면 살고' 이랬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죠. '본래 살아있기 때문에 본래 죽어갈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몸통이는 집과 같아서, 우리 밥해 먹는 술과 같아서, 음식을 만들어 내놓는 오븐과 같아서 그런 것이 부서지면 새 걸로 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다가 간수를 잘 해서 잘 쓰면 조금 오래 쓸 거고, 간수를 못 하면 얼른 망가지고 얼른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몸통이를 부모한테서 받았지만 자기 거라고 해서 마음대로 굴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뭐라 하면 "그런 건 왜 참견을 하니까?" 이러거든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그 물건을 받은 것도 잘 보존을 함으로써 부모에게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종 및 교육안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신청서 (총무원, 지방총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 주민등록 등본 2통.
- 승적증빙서류 (전종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 사찰 전경사진 (내, 외부)

◇행자(예비승) 모집

-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수 있음.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범패(타 종단 스님 가능)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음)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총무원 051)943-6570 / 중부총무원 043)648-8942 / 제주총무원 064)724-0318~9

소주천小周天 2기 모집

무너지지 않는 금강삼매로 지혜의 빛을 밝히고, 몸과 마음을 닦아 생명의 대도로 들어가시라.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삼매가 없고, 삼매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지혜와 삼매가 있는 사람은 진실로 열반에 가까이 있다.

『법구경法句經Dhammapadam』

대승회 내공법內功法은 유불선의 장점을 융합한 것입니다. 대승경典大乘經典과 정혜성수定慧雙修의 수행법을 근간으로 하며, 전진도全進道 남종의 금단대도金丹大道의 하품단법을 아울러 닦아 갑니다. 무원無願·무상無常·공공의 삼삼매三三昧를 이루어 완전한 지혜(반야般若)를 밝히는 길입니다.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본성本性を 깨달아, 생명의 기운을 끌어모아, 대도大道로 들어가며, 정신을 기울지 않게 하여 해탈解脫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정혜성수定慧雙修는 성명쌍수性命雙修를 내포합니다. 해탈은 성성을 밝히는 것이고, 정도는 명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승회의 수행은 먼저 정도와 명성을 닦고, 연후에 해탈과 성성을 닦아 밝혀 갑니다. 처음에는 명공명功에 더 중점을 두고 수련하여 선천先天의 명을 다소 회복하고, 무너지지 않는 삼매의 기반을 이루고, 상승내공으로 갈수록 성공성功에 중점을 두어 깨달음을 얻어 갑니다.

공개강좌 무료 시공施功 있습니다

무료 공개 강좌	2007. 4. 14(토), 15(일), 18(수), 19(목) 오후 7:00~9:00
강좌	인사말, 소주천 과정 소개(1시간) / 시공(1시간)
장소	역삼동 대승회 내공명상센터 6층
개강	2007. 4. 20(금) 오후 7:30
과정	12개월(주 1회) / 도덕보장, 금강경, 유불선 경전

치유명상 무료 과정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간이間難한 길이 있습니다.

쉽고 효과가 빠릅니다 (종교신앙과 관계 없습니다)

효과	*신소 공금이 원활하여 호르몬 분비의 기혈 순환이 조절됩니다. *면역기능과 장기의 기능이 강화되어 건강한 체질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 중풍, 만성질환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이 완화됩니다.
장소	역삼동 대승회 내공명상센터 6층
일시	2007. 3. 12~5. 31
시간	오전반 10:00~11:00 월~금 오후반 15:00~16:00 월~토 제약반 19:30~20:30 수, 목
과정	도인법 / 소림요법, 오음곡 / 108식 호흡 유불선 경전 강독

*수시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www.themahayana.org
대 승 회 는 유불선을 아울러 배우고 수행하는 치유와 나눔의 모임입니다

내공명상센터 Tel. 02-538-7108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16 충원B/D 6층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 6번 출구)